

특집

수업 점검의 제도화

공대 교수법 CLASS:

강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_교육지원부

공과대학 교육 향상과

교수법 CLASS 개선을 위한 좌담회

_교육지원부

공과대학 교수법 CLASS: 강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공과대학 교수법 CLASS’는 공과대학 교수들에게 강의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과대학에서 제안하여 2006년 2학기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맡고 있다. 2007년 1월 이후 정년임용 신청 예정자는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교수법 향상에 관심이 있는 공과대학 교수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가르침과 배움』에서는 특집을 마련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공대 교수법 클래스는 강의를 촬영하여 이를 분석, 자문하는 1:1 맞춤형 강의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소개

이 프로그램의 기본 방침은 강의 개발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강의 진행과 평가까지 포괄하는 전(全)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컨설팅으로, 강의 컨설팅, 강의 촬영 및 분석, 자문, 학생 피드백 등의 일련의 흐름을 따라 진행된다. 신청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목 중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과목을 정하여 강의 촬영 및 분석, 자문, 학생 피드백을 각각 2회씩 받게 된다. 또한 교수자에 따라 수업 진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한 교수법 특강이나 매체 제작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교수자간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교수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진행 사항 평가

2006년 2학기 공과대학 교수법 CLASS는 총 22명이 이수하였다. 일부

프로그램		내용
1	강의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계획과 설계에 대한 컨설팅 • 향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논의
2	강의 촬영 강의 분석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수업 촬영(2회) • 강의 촬영을 분석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 전문가와 아이디어 및 교수법 논의
3	수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중: 학생 대상 강의평가 설문 실시, 분석 자료 제공 및 자문 • 학기말: 교수자의 수업 개선 노력 및 그 효과에 대한 설문 실시, 분석, 자문
4	교수법 워크숍(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워크숍 참가
5	매체 제작 및 활용 워크숍(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 제작이나 e-Learning을 활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컨설팅 과 워크숍 참여

(공과대학 교수법 CLASS: 강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교수법 향상에 관심이 있다 하여도 연구 활동과 강의 준비로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없어 교수법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띤 교수법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대를 이루었다. 다만, 강제성이 승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는 거부감을 표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이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실시 시기와 대상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교수들이 교수자로서 자신을 점검할 계기가 되었으며, 스스로는 미처 깨닫지 못한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진단·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보다 심화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교수법 특강 등을 확대하여 교수자의 필요에 따라 깊이 있는 교수법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나 의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촬영할 때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모습도 함께 촬영하여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20여 명의 교수에게 1:1로 맞춤형 교수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 일이며, 따라서 단과대학과 교수학습개발센터 사이에 인력과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단과대학이나 학과별 전공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

공과대학 교육 향상과 교수법 CLASS 개선을 위한 좌담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공대 교수법 CLASS와 관련하여 총 4회에 걸쳐 ‘공대 교수법 CLASS의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실시하여, 공과대학 교육 개선과 이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대 교수법 CLASS의 개선을 위한 좌담회는 2006년 10월 31일(화), 11월 8일(수)과 10일(금)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01호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좌담회는 각각 2시간 안팎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3차 좌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여 12월 18일(월)에 공과대학 학장과 교무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좌담회를 실시하였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공대 교수법 CLASS 프로그램 및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 ‘공과대학 교육 개선 정책에 대한 논의’, ‘강의 촬영 효과 및 개선점 논의’, ‘수업 개선의 아이디어 교환’ 등 크게 4개 주제에 대하여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다.

1. 공대 교수법 CLASS의 의의 및 성과

1)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

- 판성적으로 강의를 진행해온 것을 반성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됨.

2) 자신의 강의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

- 교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강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3) 강의 자문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 효과

- 효과적인 강의 전달을 위한 유용한 팁(tip)을 알게 되었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음.

사실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 강의를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굉장히 주관적이었죠. 나름대로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했죠. 그건 제 강의를 좋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의 얘기만 들었던 것이고, 제 강의를 부정적으로 봤던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강의를 촬영한 것을 보니까 제가 봐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강의 촬영을 하고 나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체크 해가면서 반영해가려고 노력해요.

저는 점검받은 후 몇 가지를 고쳐봤습니다. 제가 주로 지적받은 것은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답을 제가 하는 거예요. 1시간 15분 동안 많은 분량의 내용을 진행해나가야 하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일단 질문을 던져놓고 바로 제가 대답을 하고, 또 던져놓고 제가 대답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답은 학생의 몫이다.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답을 조금 늦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촬영하고 점검받고 바로 몇 가지 개선해봤는데 실제로 워킹하더라고요. '아! 이게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2. 교수법 CLASS에 대한 제안

1) 프로그램 시기와 대상

-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높고 교수법이 형성되는 시기인 임용 초기에 실시하고, 이후에는 주기적(5년, 10년 등)으로 강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

- 강의 촬영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교수법과 관련한 다양한 특강을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수강하도록 함.
- 현재와 같은 형태라면 일정을 압축하여 진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보다 심화된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

- 수업 방식은 수업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업 촬영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 advanced course를 두어 필요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강의 자문을 선택하도록 함.

4)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의견 청취 기회 확대

- 학생 좌담회 등 강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공대 교수법 CLASS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려책 제공

-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하여 수업 개선을 위한 시간적 심리적 여유 확보.
- 이수증 등을 제공하여 심리적인 보상.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일찍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입 교수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5, 6년 후에 받고 해서 연속으로 점검하는 것은 선생님 나름대로 트라이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6년 주기로 처음에는 두 번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클래스는 매우 제너럴하거든요. 원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드밴스드 클래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실제 효과가 더 크기 위해서는 좀더 강의를 잘 아시는 분이 한 번 더 참석을 해가지고 원 포인트 레슨을 몇 가지 받았으면 하거든요. 이 클래스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원자에 한해서는 심화된 과정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 공대 전반의 교육 개선에 대한 제안

1)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 학생들의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적응을 돕고,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2) 공개 강의의 확대

- 강의를 잘하는 동료 교수의 공개 강의를 통해 교수법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3) 강의평가 제도 개선

- 획일적인 강의평가가 아닌, 수업 및 전공 특성이 반영된 강의평가

문항 개발.

4) 수업 환경 개선

- 책상과 걸상, 칠판 등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현재 강의를 개선하는 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강의를 개선하는 노력에 의해서 학생이 변하는 정도는 미미해요. 그래서 학생을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효과가 훨씬 큼니다. 철이 든 학생에게는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잘합니다. 그게 효과가 정말 크죠. 그런 것을 학교 차원에서 고민해야 해요. 그래야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어떤 강의를 좋은 강의냐고 할 때 사실은 실례를 확인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교 전체에서도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상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명강의라고 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여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거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과대학별로 몇 분씩 추려서 그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어느 분 것을 보고 참고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